

연구보고 R455 / 2003. 12.

농가의 미곡유통 실태 분석

박 동 규 연구위원
김 혜 영 초청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 담당

박 동 규	연구 위원	보고서 집필
김 혜 영	초청연구원	통계자료 분석, 조사 및 결과 분석

머 리 말

2001년 수확기에 조곡 40당 가격이 2000년 동기 대비 7.4%나 하락하였다. 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운영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미곡유통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산량 중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과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며 시기별로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았으나 연구자마다 다른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보다 객관적인 용도별 소비량, 판매 시기별 물량 및 미곡 소비에 있어서 농가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의 미곡 판매처는 미곡종합처리장, 임도정공장, 산지 수집상, 대도시 도매·소매상 등으로 다양하다. 산지 쌀 시장에서 농가의 유통업체별 판매량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농가의 미곡 판매처 선택요인은 무엇이며, 향후 변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미곡 소비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는 농가 대상의 설문조사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 결과보다 표본 및 비표본오차가 줄어든 것으로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정부의 미곡 유통정책 수립에 유익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요 약

이 연구는 농가단위의 미곡 소비 현황과 판매 실태를 분석하였다. 농가의 미곡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조사하는 양곡소비량 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당 연구원 통신휘를 대상으로 판매 실태를 조사하였다.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02 양곡연도에 호당 평균 수확량의 소비량과 판매량 비중은 각각 27.8%와 72.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인 생산량 중 농가단위에서 소비량 물량 비중 33.3%와 판매량 비중 66.7%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농가당 연간 소비량의 62.9% 정도가 10~12월 동안에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산의 경우 수확이 시작되는 9월과 10월의 식량용 소비량은 각각 35.3kg과 36.6kg인데 이 중 2000년산은 각각 34.7kg과 31.1kg으로 농가는 수확기까지 전년 산 쌀을 보유하면서 식량용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판매량 중 양곡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판매되는 물량 비중과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판매하는 물량 비중은 각각 71.7%와 76.6%를 차지하며 익년도 10월까지 판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농가는 수확이 시작되는 10월까지도 전년 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한다는 점이다. 시기별 판매량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연도 10~12월 또는 10~익년도 1월을 수확기라기보다는 “성출하기”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농가는 높은 가격, 판매 용이성, 현금화 용이성의 순서로 판매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용이성이 높은 선호요인으로 나

타난 것은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사회에서 농가가 산물벼를 쉽게 출하할 수 있는 판매처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는 높은 가격, 판매 용이성, 현금화 용이성, 운반 용이성, 신뢰도의 모든 부문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의 41% 정도가 RPC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PC 다음으로는 임도정업체가 시중출하량의 20% 정도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는 73.0%, 전북은 24.4%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도별로 산지 수집상 판매 비율이 2~5% 정도로 낮지만 충남과 전북지역이 각각 32.9%와 16.4%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기미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산지수집상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역일 수 있다. 또한 전북 지역의 쌀도 미질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 부문 수집상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RPC와 임도정업체 출하 비중이 높으나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RPC 출하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도정공장, 직거래, 산지수집상 등 다양한 판매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 동안 판매처를 변경한 83농가 중 임도정공장과 RPC, 도소매상 출하 비중을 줄인 농가가 71%가 되었다. 임도정공장 출하 비중을 줄인 25농가 중 16농가가 RPC로 출하 비중을 늘렸으며 4농가가 농협에 출하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RPC 출하 비중을 줄인 17농가 중 9농가는 임도정공장 출하 비중을 늘렸으며 3농가는 직거래 비중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농가는 향후 판매처를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처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은 직거래로 나타났다. 직거래 선호의 원인으로 높은 가격을 답하였다. 또한 농가는 RPC와 대도시 도소매상도 중요한 판매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선행 연구 검토	3
4.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농가의 미곡 소비 실태	7
1. 통계청의 소비량 조사 개요	7
2. 시기별 수확량	10
3. 용도별 소비량	12
4. 월별 소비량	15
5. 농가 특성별 소비량	23
<부록 1> 함평군 3개 RPC별, 일자별 벼 매입량 (가마/조곡 40kg)	35
제3장 미곡 판매 실태	38
1. 조사 개요	38
2. 판매처 선택 요인	40
3. 판매처, 지역별 판매량	42
4. 판매처 변경	46
<부록 2> 농가의 미곡 유통 실태 조사	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제4장 요약 및 결론	52
1. 문제 인식	52
2. 농가의 쌀 소비 행태	53
3. 쌀 판매	55
4. 이 연구의 장점과 한계	57
ABSTRACT	59
참고문헌	61



표 목 차

제1장

표 1- 1. 미국 유통량 추정치	4
--------------------------	---

제2장

표 2- 1. 지역 및 규모별 농가 분포	9
표 2- 2. 농가당 지역별, 용도별 소비량	9
표 2- 3. 월별 농가당 수확량, 총생산량	11
표 2- 4. 연도별 일조시간	11
표 2- 5. 농가당 용도별 소비량 비중	12
표 2- 6. 농가당 유상증여 실태	13
표 2- 7. 용도별 소비량	15
표 2- 8. 농가당 월별, 용도별 소비량	16
표 2- 9. 농가당 월별, 용도별 소비량 비중	18
표 2-10. 농가당 월별, 용도별 소비량	20
표 2-11. 농가당 양곡연도별, 월별 판매량	21
표 2-12. 경영규모별 용도별 월평균 소비량	24
표 2-13. 경영규모별 월별 식량용 소비량	25
표 2-14. 경영규모별 월별 증여량	26
표 2-15. 경영규모별 월별 임차료 지급량	27
표 2-16. 경영규모별 월별 판매량	28
표 2-17. 지역별 용도별 농가당 소비량	30

표 2-18. 지역별 월별 식량용 비중	31
표 2-19. 지역별 월별 증여량	32
표 2-20. 지역별 월별 임차료 지급량	33
표 2-21. 지역별 월별 판매량	34

제3장

표 3-1. 조사 대상 농가 개요	39
표 3-2. 판매처별 선호요인	41
표 3-3. 판매처별 만족도	42
표 3-4. 판매처별 비중 변화	43
표 3-5. 도별, 판매처별 물량 비중	44
표 3-6. 경영규모별, 판매처별 물량 비중	45
표 3-7. 판매처 변경 실태	46
표 3-8. 판매처 변경과 요인	47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월별 판매량 비중 비교	22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쌀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거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2년산부터 가격 하락분의 80%를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었으며 소득보전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수확기인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의 전국평균 산지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농가는 생산량 중 어느 정도를 10월부터 익년도 1월 동안에 판매하는가? 즉, 이 기간의 가격만 고려하여도 무리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1년 대풍작으로 인해 수확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유통 혼란이 일어났다.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월 동안의 산지가격이 조곡 40kg 기준 56,096원에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 동안의 가격은 51,964원으로 하락하였다. 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이하 RPC)에 운영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였다.¹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²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미곡유통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량 중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과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며 시기별로 어떻게 배분되는가? 기존의 연구에서 임차료와 증여량을 농가 단위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농가가 지급한 임차료와 증여량 중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은 없는가? 농가는 수확량의 일부를 단경기까지 보관하면서 식량용으로 소비하는가?”라는 질문에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경영규모별 소비 및 판매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가의 용도별(식량, 증여, 임차료, 판매 등) 소비량 추정은 연구자별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는 조사 시기, 조사 대상 및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도별 소비량, 판매 시기별 물량 및 농가별 또는 경영규모나 지역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의 미곡 판매처는 RPC, 임도정공장, 산지 수집상, 대도시 도매·소매상 등으로 다양하나 정부의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은 RPC에 집중되고 있어서 수확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¹ WTO 출범에 따라 약정수매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확기 시장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RPC가 원료곡 매입량을 확대하도록 정부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2001년도에는 대풍작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하락 폭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운영자금 외에 특별자금을 지원함.

²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확기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음.

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가의 미곡 판매에 있어서 유통업체별, 지역별 차이가 있다면 RPC 중심의 유통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산지 쌀 시장에서 농가의 유통업체별(RPC, 임도정업체 등) 판매량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농가의 벼(또는 정곡) 판매처 선택요인은 무엇이며, 향후 변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가의 미곡 유통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3. 선행 연구 검토

농협중앙회(1998)는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중 증여량과 현물지급량³ 비중이 각각 9.2%와 6.2%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농가의 식량용 소비량은 통계청이 조사한 농가 1인당 쌀 소비량에 농가인구와 벼 재배농가 비중을 곱하여 구하였다.

박동규 외(2002), 이정환 외(2002)는 농협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미곡 유통량을 추정하였다<표 1-1>. 생산량 중 농가 단위에서 식량, 증여, 임차료 지급 등으로 소비하는 물량 비중은 35% 내외 수준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농가가 도시의 친인척에 증여한 물량과

³ 임차료 지급량으로 간주함.

임차료로 지급한 물량 중 시장에 다시 출하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0~12월 동안의 농가당 월별 미곡 조수입(농가경제통계연보자료 활용)을 산지가격으로 나누어서 10~12월 동안의 판매량 비중을 구하였다. 수확기의 시장출하량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1년도의 경우 63% 수준이 10~12월 동안에 출하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RPC매입량은 정부의 원료곡 매입자금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대두하였다. 단경기 판매를 위한 농가의 벼 보유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므로 수확기 출하량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농가가 단경기까지 식량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벼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수확기 시장판매량이 추정치보다 많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RPC의 등장으로 임도정업체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도정업체의 유통량 비중이 과소평가된 반면 RPC의 원료곡 매입량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표 1-1. 미곡 유통량 추정치

단위: 만석

생산년도	1990	1995	2001
생산량	4,096	3,513	3,830
농가소비량 ¹⁾	1,425	1,222	1,255
시장출하량	2,671	2,291	2,575
농가보관량 ²⁾	1,338	907	937
수확기 출하량	1,338	1,384	1,638
RPC매입량	-	98	553
비RPC 매입량	158	236	253

주 1) 농가소비량에 식량소비량, 증여, 현물지급이 포함됨.

2) 단경기(1월~9월) 판매를 위해 농가에서 보관하는 물량.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시행방안』, 2002.

윤석원(2001)은 RPC 설치로 인한 산지 및 소비지의 쌀 유통 환경 변화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브랜드쌀의 출시, 계절진폭 축소, RPC 설립에 따른 산지 쌀 시장 변화를 살펴보았다. 산지 쌀 시장 구조 변화를 조사하였으나 변화 요인과 농가의 용도별, 시기별 소비량 파악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윤석원·김근영(2002)은 산지 중심의 쌀 유통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쌀 생산지 5개 지역(경기, 경남, 경북, 충남, 전북)의 211호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농협 RPC 23개와 민간 RPC 25개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하였다. 농가 조사의 경우 농민 교육장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 대상이 제한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4.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농가가 수확한 물량을 용도별로 어느 시기에 얼마나 소비하는 것인지 2) 농가가 시장에 판매하는 물량 중 업체별 비중, 업체 선택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농가의 월별 수확량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농가별 월별 수확량 자료를 인용하였다. 용도별 월별 소비량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통계청의 2001~02양곡연도 '양곡 소비량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⁴ 통계청은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중 628

⁴ 통계청으로부터 1999~2002 양곡연도 양곡소비량 원자료를 구입하여 분석하였으나 연도별로 조사 항목 등의 조정이 있어서 일관된 결과를 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분석기간을 조사 항목 변경이 없었던 2001~02년으로 제한함.

호를 대상으로 월별 양곡 소비량을 조사하고 있어서 농가 단위의 미곡 수입 및 지출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통계청은 양곡소비량 자료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별 판매량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농가경제통계연보』의 월별 미곡조수입 자료를 농협의 월별 농기판매가격으로 나누어 판매량을 추정하였고 이를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농가의 벼(또는 미곡) 판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491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하였다.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 농가를 대상으로 벼 판매 실태를 조사하면 자료의 일관성 유지 등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득이 조사 대상을 다르게 하였다.

제2장에서는 통계청이 조사한 원자료를 분석하여 농가의 용도별, 월별 소비량을 지역별 및 경영규모별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를 기초로 판매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 2 장

농가의 미곡 소비 실태

1. 통계청의 소비량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및 표본

정부는 양곡 수급계획, 식생활 개선, 식량 생산목표 설정, 식량문제 연구 등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하기 위해 양곡 소비량을 조사하고 있다. 농림부는 인구주택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농가 426호, 비농가 294호 등 총 720호를 선정하여 1962년에 처음으로 양곡 소비량을 조사하였다. 그 후 10차에 걸쳐 조사 표본을 개편하였으며 최근에는 1995년 인구주택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농가 628호와 비농가 625호를 대상으로 양곡 소비량을 조사하고 있다. 부처 간 업무조정이 이루어져 1998년 7월부터 통계청에서 양곡 소비량을 조사하고 있다.

외국인 가구, 요양소·기숙사·구치소·병영 등 집단가구와 1인가구(독신자)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2. 조사 시기 및 방법

조사기간은 양곡연도인 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매월 조사한다. 매월 초 조사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배포하고 월말에 수거한다. 조사 대상 농가가 소비량 등을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표에 의문점이 있을 경우에는 면접조사를 병행하므로 조사결과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1.3. 조사 내용

양곡 소비량 조사 품목은 메벼, 찰벼, 걸보리, 쌀보리, 밀가루, 콩, 팥, 고구마, 감자 등 23종이다. 조사 항목은 식용 소비량(주·부식용, 장유 제조용, 떡·과자 제조용, 기타 음식 제조용), 판매용, 종자용, 사료용, 증여, 임차료,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식용 소비량은 가정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소비하는 물량, 판매량은 유상으로 판매하는 모든 물량을 포함한다. 증여량은 무상으로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물량이다. 증여를 하였지만 사후적으로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이는 판매용으로 분류된다. 사료용은 개별 농가에서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료는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하며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판매하는 물량은 판매용으로 분류된다.

1.4.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조사한 2001~02 양곡연도 양곡 소비량 조사 원자료의 여러 가지 품목 중 “쌀”을 대상으로 용도별(식량, 증여, 임차료 지급, 판매용 등), 시기별, 농가의 경영규모별 및 지역별 소비량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농가별 양곡 소비량 조사 대상 628 표본 농가들의 규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및 지역별 분포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경영규모 0.5ha에서 1.0ha 사이의 농가가 148호로 23.6%, 1.0ha에서 1.5ha의 농가가 134농가, 0.5ha 미만인 123농가이며, 1.5ha 미만의 농가가 405호로 조사대상 농가의 6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지역 및 규모별 농가 분포

단위: 호, (%)

규모(ha) \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0.5 미만	22	12	10	12	13	18	10	20	6	123(19.6)
0.5~1.0	18	13	16	16	24	19	15	22	5	148(23.6)
1.0~1.5	16	13	16	21	12	15	17	17	7	134(21.3)
1.5~2.0	2	11	9	7	11	11	18	10	6	85(13.5)
2.0~2.5	3	8	5	10	5	5	5	3	3	47(7.5)
2.5~3.0	6	6	8	3	3	2	-	2	1	31(4.9)
3.0~5.0	3	6	7	4	7	5	7	2	4	45(7.2)
5.0 이상	4	3	1	1	3	1	-	-	2	15(2.4)
계	74	72	72	74	78	76	72	76	34	628(100.0)

표 2-2. 농가당 지역별, 용도별 소비량(2001~02양곡연도 평균)

단위: kg

용도 시도	자가소비					판매 (B)	계 (A+B)
	계(A)	식량	증여	임차료	기타		
경기	85.3	34.9	20.7	22.9	6.7	217.4	302.7
강원	88.6	33.5	18.9	23.0	13.3	229.9	318.5
충북	82.6	34.7	20.6	18.7	8.7	223.7	306.3
충남	86.6	36.2	21.7	16.3	12.5	255.5	342.1
전북	128.8	36.0	27.1	39.2	26.5	392.1	520.9
전남	94.9	31.6	31.2	23.3	8.8	265.4	360.3
경북	79.5	33.8	24.9	16.0	4.8	184.4	263.9
경남	85.4	32.2	24.4	24.5	4.3	131.0	216.4
제주	30.2	28.3	1.8	0.0	0.1	0.2	30.4

분석 결과 제주도 농가의 벼 판매량은 미미하여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월별 용도별 소비량을 분석 시 제주도는 제외하였다<표 2-2>.

2. 시기별 수확량

수확은 9월에 시작하여 10월에 80~90%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11월이면 수확은 거의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연도별 월별 수확량 비중은 기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월 이후 일조시간이 비교적 많았던 2000년의 9월 수확량 비중이 4.9%였고, 7월부터 9월 동안 일조시간이 190시간이나 되었던 2001년도 9월 수확량 비중은 9.3%로 높았다. 반면, 일조시간이 적었던 2002년도 동 월 수확량 비중은 3.7%로 줄어들었다. 2000~2002년 동안 기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84~90% 정도가 10월 중에 수확되며 11월 중 수확량 비중은 7%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월별 수확량 비중을 고려하면 “수확기”는 9~11월로 정의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 10~12월 또는 10~익년도 1월을 “수확기”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수확기 가격을 산정할 때 신곡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9월에 포함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정책사업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확기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확기 가격에 대한 단경기 가격인 계절진폭 수준은 수확기 개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양곡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9월이면 수확량이 대략 결정되므로 이 시점에는 양곡연도의 수급 전망

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과 연계하여 양곡연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표 2-3. 월별 농가당 수확량, 총생산량

단위: kg(%), 만석

연도 월	2000	2001	2002
9	178.4(4.9)	368.1(9.3)	133.4(3.7)
10	3,258.1(89.9)	3,317.4(83.5)	3,215.1(89.0)
11	187.6(5.2)	277.7(7.0)	263.6(7.3)
12	1.8(0.0)	1.8(0.0)	1.7(0.0)
계	3,625.9(100.0)	3,975.0(100.0)	3,613.8(100.0)
총생산량*	3,674	3,830	3,42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확기 전국 9,310개 표본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산량 조사결과임.

자료: 가구 부문 양곡소비량 및 미국재고량 조사결과(내부자료), 통계청.

표 2-4. 연도별 일조시간

단위: 시간

연도 월	6	7	8	9	10	7~9평균
2000	159.4	169.0	158.4	129.8	168.8	152.4
2001	137.0	165.9	195.7	207.9	158.6	189.9
2002	208.7	137.3	85.2	171.4	190.8	131.3
평균	168.4	157.4	146.4	169.7	172.7	157.8

주: 6개 지역(수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의 월별 평균 일조시간
자료: 기상청.

⁵ 일본에서도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양곡연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유통관행을 감안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3. 용도별 소비량

수확량은 농가 단위에서 식량, 증여, 현물지급(임차료), 종자용 등으로 소비되고 나머지는 약정수매에 응하거나 시장에 판매된다. 2001~02 양곡연도 평균 농가별 수확량 중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과 판매량 비중은 각각 27.8%와 72.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5>.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인 생산량 중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 비중 33.3%와 판매량 비중 66.7%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농가의 식량용 소비량을 농가 1인당 식량용 소비량에 농가인구와 벼 재배농가 비중을 곱하여 구하였는데 이는 생산량의 7~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농가당 수확량 중 식량용 소비량 비중 2001~02 양곡연도 평균 10.3%보다 2.8%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수확량 중 농가 단위에서 식량용으로 소비되는 물량이 과소평가되었는데 이는 농가 중 벼 재배 농가와 벼 이외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를 구분한 결과이다.

표 2-5. 농가당 용도별 소비량 비중

단위: %

용도 양곡연도	자가소비					판매 ²⁾	계
	계	식량	증여	임차	기타 ¹⁾		
2001	27.8	10.3	7.3	7.7	2.6	72.2	100.0
2002	27.8	10.4	7.1	6.3	4.0	72.2	100.0
평균	27.8	10.3	7.2	7.0	3.3	72.2	100.0

주 1) 기타는 종자용, 사료용, 감모, 부패 등을 포함함.

2) 약정수매량과 시장판매를 포함

수확량 중 증여량 비중이 2001~02 양곡연도 평균 7.2%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 결과인 9.2%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증여량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데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한다.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 증여량 중 7.4%는 유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강원, 전남·북의 유상증여 비율이 높은 반면 충남·북의 유상증여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6>.

2001~02 양곡연도 평균 농가당 수확량 중 임차료 지급 물량 비중은 7.0%로 기존 연구 결과인 현물지급량 비중 6.2%보다 높으나 2002양곡연도 임차료 비중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⁶ 임차료 지급량 비중의 차이는 조사 시점과 조사 대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 임차료는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과 현물을 혼합하

표 2-6. 농가당 유상증여 실태

단위: kg, %

도별	농가당 증여량	유상 증여율
경기	808	6.5
강원	540	15.3
충북	592	0.9
충남	790	2.5
전북	704	15.0
전남	670	10.2
경북	663	7.6
경남	553	6.2
전국평균	671	7.4

⁶ 기존의 연구에서는 현물지급량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임차료 지급으로 간주함.

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임차료를 현물지급량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1~02양곡연도 평균 종자용, 사료용, 부패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하는 기타 소비량은 수확량의 3.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양곡연도의 기타 물량 비중이 4.0%로 2001년도의 2.6%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도 기상이 좋지 않아 부패 등으로 손실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생산량 중 10.5% 정도가 종자 및 감모 등 기타물량으로 처리되는 것을 가정 하였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농림부가 내부 자료로 사용하는 『양정자료』의 기타(종자 및 감모) 물량을 참고하였다. 『양정자료』의 기타 물량은 사료용 및 종자용과 함께 재고량 조사결과 발생한 오차를 포함하므로 실제 기타 목적으로 소비되는 물량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판매량은 수확량 중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수확량의 72.2%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생산량 중 판매량 비중은 66.7%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 중 식량용과 기타 물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농가당 용도별 소비량 비중을 총생산량에 적용하면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1,043만석, 판매량은 2,709만석 수준이며 정부 구매량을 제외한 시장출하량은 2,024~2,262만석으로 추정된다(표 2-7).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자료를 분석한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1,043만석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적용한 농가 단위 소비량 1,250만석에 비해 207만석 정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연구에 비해 식량용은 108만석이 많지만 증여량, 임차료 지급량 및 기타 소비량이 316만석 정도 적기 때문이다. 특히, 기타 물량에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표 2-7. 용도별 소비량

단위: 만석

양곡연도	생산량	자가소비량					판매		
		계	식량	증여	임차료	기타 ²⁾	계	약정수매	시장출하
2001	3,674	1021	378	267	282	94	2653	629	2,024
		(1,245) ¹⁾	(287)	(338)	(228)	(392)	(2,429)		(2,035)
2002	3,830	1093	408	279	248	158	2837	575	2,262
		(1,255)	(273)	(352)	(237)	(393)	(2,575)		(2,000)
2001~ 02평균	3,752	1,043	388	270	262	123	2,709	602	2,107
		(1,250)	(280)	(345)	(233)	(393)	(2,502)		(2,018)

주 1) () 안의 수치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추정량임.

2) 기타 물량 중 () 안의 수치는 종자, 감모 등으로 양정자료에서 인용함.

기존의 연구 결과와 약 270만석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기타 물량의 분류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분석한 판매량 추정치는 기존 연구에서 추정한 물량보다 207만석, 약정수매량을 제외한 시장출하량만 고려하면 89만석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월별 소비량

<표 2-8>은 2001년산 수확기부터 익년도 수확기까지 월별 쌀(멥쌀과 찰쌀) 용도별 소비량을 보여 주고 있다.⁷ 특히 수확기에는 신곡과 구곡을 분류하고 있어서 농가의 시기별, 용도별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⁷ 멥쌀과 찰쌀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없으므로 월별, 특히 수확기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본 자료를 사용하기로 함.

농가당 평균 월별 식량용 소비량은 32~40kg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날이 포함된 2월의 식량용 소비량은 40kg으로 가장 많은 반면 6월의 소비량은 가장 낮은 31.6kg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수확이 시작되는 9월과 10월의 식량용 소비량은 각각 35.3kg과 36.6kg인데 이 중 구곡인 2000년산은 각각 34.7kg과 31.1kg으로 농가는 수확기까지 전년산 쌀을 보유하면서 식량용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산 수확이 시작되는 2002년 9월과 10월의 식량용 소비량은 각각 35.4kg과 32.3kg이나 이 중 신곡(2002년산) 소비량은 0.1kg과 0.9kg에 불

표 2-8. 농가당 월별, 용도별 소비량¹⁾

단위: kg

연월	식량	증여	임차료	기타	판매	계
2001.9 ²⁾	0.6(34.7)	2.3(22.4)	5.1(3.7)	2.3(3.7)	130.2(63.3)	140.5(127.8)
10 ²⁾	5.5(31.1)	27.7(23.8)	95.3(0.7)	13.4(1.4)	680.3(24.6)	821.9(81.6)
11	33.5	41.9	100.6	10.8	731.3	898.1
12	34.6	34.6	58.6	8.2	638.2	774.2
2002.1	34.7	18.4	2.8	3.7	180.0	239.6
2	40.0	33.1	3.7	4.3	96.6	177.6
3	32.7	13.3	2.4	4.7	76.9	130.0
4	32.0	14.2	0.9	12.2	62.1	141.4
5	32.6	14.6	0.8	8.4	73.7	130.1
6	31.6	14.9	1.7	3.8	69.1	121.1
7	32.8	15.7	1.0	2.5	65.3	117.3
8	33.4	17.9	1.2	2.3	67.6	122.4
9 ³⁾	35.3(0.1)	29.0(0.7)	0.7(0.5)	2.7(1.4)	61.7(52.0)	129.4(54.7)
10 ³⁾	31.4(0.9)	16.7(14.5)	0.9(68.3)	1.3(11.4)	39.7(611.3)	90(706.4)
계 ⁴⁾	410.7 (66.8)	294.3 (61.4)	275.7 (73.2)	100.6 (17.9)	2,972.6 (750.9)	4,033.6 (970.5)

주 1) 멍쌀과 찰쌀이 포함된 것임.

2) () 안의 수치는 2000년산.

3) () 안의 수치는 2002년산.

4) () 안의 수치는 2000, 2002년산 합계임.

과하다.⁸ 이는 농가의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편의성을 중시하므로 수확기에 시장 판매량을 늘리는 대신 단경기까지 식량용으로 보유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일부 주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수확기인 9~11월과 12월의 증여량이 많으며 9월과 10월에는 신곡과 구곡을 동시에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가 신곡을 친인척에 증여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수확기 이후에도 농가당 매월 13~17kg 정도를 증여하며 설날이 포함된 2월의 증여량은 33.1kg으로 평월의 2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료 지급량은 수확이 본격 시작되는 10~11월 평균 100kg 정도로 많으며 12월에는 60kg수준으로 낮아진다. 증여와는 다르게 임차료는 상품성이 높은 신곡 위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양곡연도의 경우 수확량이 많은 2002년 10월에 지급하는 농가당 임차료 지급량은 69.2kg이나 이 중 신곡이 68.3kg을 차지하였다. 10~12월 동안의 임차료 지급량은 농가의 식량용 소비량을 2~3배 초과하는 수준이므로, 현물로 지급되는 임차료의 일부를 지주가 시장에 출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에 언급된 판매량은 최소 추정치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판매량 중 10월부터 12월까지 판매되는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판매량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연도 10~12월 또는 10~익년도 1월을 수확기라기보다는 “성출하기”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농가는 수확이 시작되는 10월까지도 전년 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2002년 10월 농가당 판매량은 796.6kg이나 이중 구곡은 11.3%인 90kg이나 된다.

⁸ 2002년 9월과 10월 식량용 소비량 중 신곡은 0.1kg과 0.9kg, 2001년 동월 신곡 소비량 0.6kg과 5.5kg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2년 기상 악화로 수확 시기가 지연된 결과로 해석됨

종합적으로 농가당 소비량 중 10~12월 동안에 소비되는 물량이 774~904kg으로 가장 많으며 1월에는 240kg 수준으로 줄어든다. 수확이 시작되는 9월과 10월에 소비되는 물량 중 구곡 소비량 비중은 20%(2001년 수확기 17.9%, 2002년 수확기 22.4%)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곡이 출하되는 시점에 농가의 구곡 소비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차이가 있다.

<표 2-9>는 용도별 월별 소비량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소비량 비중이 20% 내외 수준으로 높으며 익년도 1월에는 5.9%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부터 12월 동안 소비량 비중이 높은 것은 증여, 임차, 판매량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매량 소비량이 익년도 1월에는 6%로 하락한다.

표 2-9. 농가당 월별, 용도별 소비량 비중

단위: %

연월	식량	증여	임차료	기타	판매	계
2001.9*	0.1(51.9)	0.8(36.5)	1.8(5.1)	2.3(20.7)	4.4(8.4)	3.5(13.2)
10*	1.3(46.6)	9.4(38.8)	34.6(1.0)	13.3(7.8)	22.9(3.3)	20.4(8.4)
11	8.2	14.2	36.5	10.7	24.6	22.3
12	8.4	11.8	21.3	8.2	21.5	19.2
2002.1	8.4	6.3	1.0	3.7	6.1	5.9
2	9.7	11.2	1.3	4.3	3.2	4.4
3	8.0	4.5	0.9	4.7	2.6	3.2
4	7.8	4.8	0.3	12.1	2.1	3.5
5	7.9	5.0	0.3	8.3	2.5	3.2
6	7.7	5.1	0.6	3.8	2.3	3.0
7	8.0	5.3	0.4	2.5	2.2	2.9
8	8.1	6.1	0.4	2.3	2.3	3.0
9*	8.6(0.1)	9.9(1.1)	0.3(0.7)	2.7(7.8)	2.1(6.9)	3.2(5.6)
10*	7.6(1.3)	5.7(23.6)	0.3(93.3)	1.3(63.7)	1.3(81.4)	2.2(7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 () 안의 비율은 2000년, 2002년산에 대한 비율임.

<표 2-10>은 2001~02양곡연도 평균 용도별, 월별 소비량(소비량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농가당 평균 수확량의 62.9%가 10~12월, 68.1%가 10~익년도 1월 동안에 식량, 증여, 임차료, 기타, 판매 등의 용도로 소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소비량 중 12월 소비량 비중이 16.0%에서 1월에는 5.2%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증여, 임차료 및 판매량이 특히, 판매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농가당 연평균 식량용 소비량은 409.3kg이며 월별 소비량은 34kg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가당 증여량은 285.0kg이나 수확기인 9~11월 동안의 증여비율은 40.1%, 12월은 10.9%이며 1월부터 8월 동안의 월별 증여량 비중은 5~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가당 임차료 지급 물량은 277.5kg이며 이 중 10~12월 동안에 지급하는 물량 비중은 91.8%이다. 수확기에 맞추어 임차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르게 단경기까지 소량이나마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되는 물량 중 4월과 5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영농기에 접어들면서 종자용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당 판매량은 2,859.3kg인데 이 중 10월부터 12월까지의 판매량 비중은 71.7%에 이른다. 12월의 판매량 비중 18.3%에서 익년도 1월 판매량 비중이 4.9%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단경기인 8월까지의 판매량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신곡이 생산되는 9월부터는 판매량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별 판매량 비중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1>. 2001 양곡연도 10~12월동안 판매량 비중은 69.1%이

⁹ 박동규외(2003)의 『산지 쌀 가격 조사가격 체계 개선』 연구에서도 유통업체별, 월일별 원료곡 매입량을 조사한 결과 익년도 1월에는 거래일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동시에 물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나 2002 양곡연도에는 74.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로 기상
에 따른 월별 수확량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0. 농가당 월별, 용도별 소비량(2001~02양곡연도 평균)

단위: kg(%)

용도 월	식량	증여	임차료	기타	판매	계
11	33.4 (8.2)	50.0 (17.5)	94.1 (33.5)	13.1 (10.7)	765.8 (26.8)	956.5 (23.5)
12	34.7 (8.5)	30.9 (10.9)	56.9 (21.4)	7.2 (5.6)	520.2 (18.3)	649.9 (16.0)
1	39.2 (9.5)	24.5 (8.5)	5.5 (1.9)	3.1 (2.5)	139.9 (4.9)	212.2 (5.2)
2	34.9 (8.5)	22.6 (8.0)	4.0 (1.5)	2.5 (2.0)	81.2 (2.8)	145.2 (3.6)
3	32.9 (8.0)	14.8 (5.2)	0.7 (0.3)	4.0 (3.1)	84.9 (3.0)	137.2 (3.4)
4	32.0 (7.8)	12.6 (4.4)	2.2 (0.8)	34.0 (27.6)	78.2 (2.7)	158.9 (3.9)
5	33.5 (8.2)	14.2 (5.0)	0.5 (0.2)	36.1 (24.6)	61.2 (2.1)	145.6 (3.6)
6	32.0 (7.8)	16.6 (5.8)	1.9 (0.6)	2.8 (2.3)	51.2 (1.8)	104.4 (2.6)
7	33.5 (8.2)	14.7 (5.2)	1.1 (0.4)	2.3 (1.8)	60.9 (2.1)	112.5 (2.8)
8	33.9 (8.3)	19.9 (7.0)	0.3 (0.1)	2.9 (2.4)	67.3 (2.3)	124.2 (3.1)
9	35.2 (8.6)	25.5 (9.0)	7.6 (2.5)	5.6 (4.9)	186.7 (6.5)	260.6 (6.4)
10	34.1 (8.3)	38.9 (13.6)	102.7 (36.9)	15.6 (12.5)	761.9 (26.6)	953.1 (23.4)
계	409.3 (100.0)	285.0 (100.0)	277.5 (100.0)	129.3 (100.0)	2,859.3 (100.0)	4,065.7 (100.0)

기존의 연구에서는 10~12월 또는 10~익년도 1월 동안의 판매량 비중을 구하기 위해 『농가경제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월별 판매량을 구하였다. 『농가경제통계연보』의 미국 월별 조수입을 농협 조사월보의 농가판매가격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를 경우 적용하는 가격에¹⁰ 따라서 월별 판매 물량이 다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농가경제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구한 2001~02양곡연도 10~12월 동안 판매량 비중은 64.8%인데 반해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에 기초한 이 기간의 판매량 비중은 71.7%로 6.9%포인트 차이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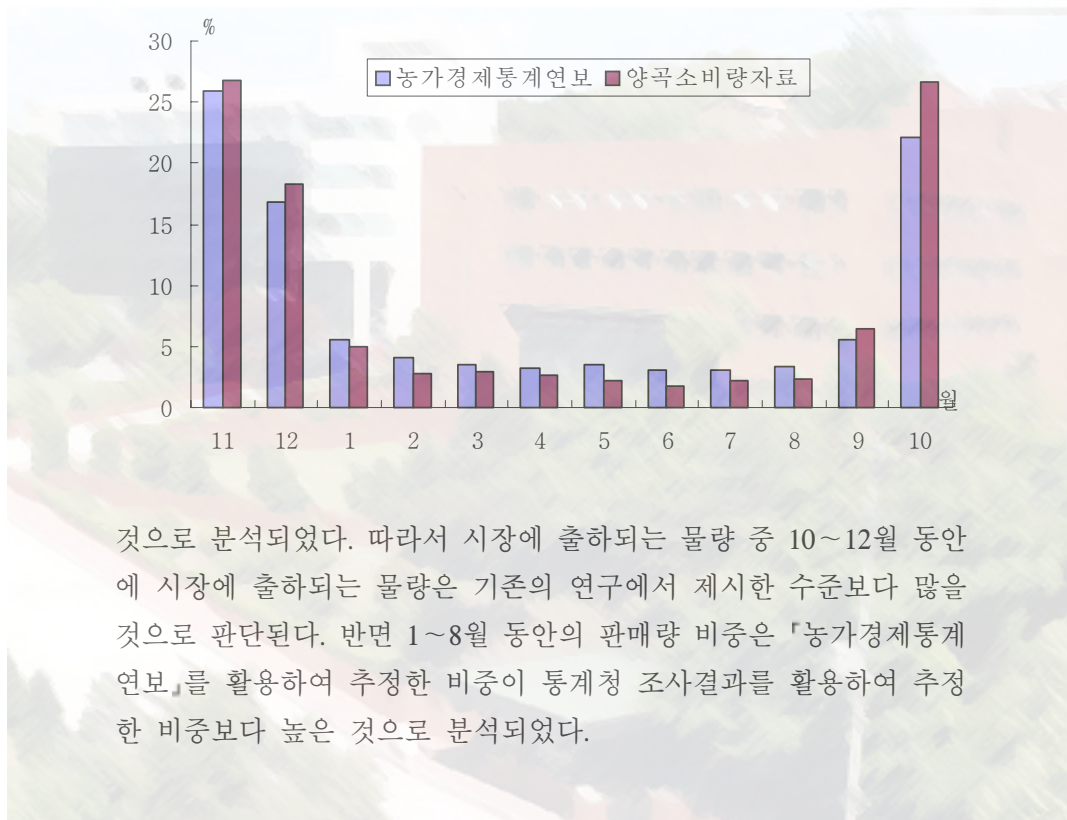
표 2-11. 농가당 양곡연도별, 월별 판매량

단위: kg, %

월	2001		2002	
	물량	비율	물량	비율
11	818.7	27.9	712.9	25.6
12	411.2	14.0	629.3	22.6
1	103.7	3.5	176.0	6.3
2	83.2	2.8	79.1	2.8
3	93.9	3.2	75.8	2.7
4	112.6	3.8	43.7	1.6
5	81.1	2.8	41.4	1.5
6	46.2	1.6	56.1	2.0
7	64.7	2.2	57.1	2.1
8	74.3	2.5	60.3	2.2
9	249.0	8.5	124.4	4.5
10	797.3	27.2	726.4	26.1
계	2,935.9	100.0	2,782.6	100.0

¹⁰ 농가 수취가격으로는 농협중앙회가 조사하는 농가판매가격, 농림부 유통통계자료인 산지가격과 농관원이 조사하는 산지가격 등이 있으나 조사주체, 조사규모 및 대상이 다르므로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음.

그림 2.1. 월별 판매량 비중 비교(2001~02평균)



5. 농가 특성별 소비량

5.1. 경영규모별 소비량¹¹

경영규모별로 월별, 용도별로 소비량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2-12~16>. 경영규모가 클수록 농가 단위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면적에 비례하여 임차료 지급량과 증여량이 많기 때문이다. 경영규모가 클수록 식량 소비량도 다소 증가하는데 이는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설이 포함된 1월의 식량용 소비량 비중이 10% 이상으로 높지만 연중 식량용 소비량 비중은 총식량용 소비량의 8% 내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규모가 클수록 소비량 자체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경영규모 0.5ha 미만 계층의 농가를 제외하고는 성출하기와 단경기 증여량 비중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규모 3.0ha 이상 농가의 10~12월 증여량 비중이 50.9%로 높고 3~8월 동안의 월별 증여량 비율은 2~6%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날이 포함된 1월의 증여량 비중은 14.1%로 12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규모가 0.5ha 미만인 농가의 10~12월 동안 증여 비율이 31.4%로 낮으며 설이 속해 있는 월의 증여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영규모와 임차료 지급량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5ha

¹¹ 2002년도에는 경영규모별 소비량 조사가 시행되지 않아 2001년 결과만 사용하므로 월평균자료는 앞에 제시된 결과와 차이가 있음.

미만 농가의 임차료 지급량은 총 11.4kg인데 반해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의 임차료 지급량은 1,277.3kg이나 된다. 경영규모가 클수록 10~12월 동안 임차료로 지급하는 물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규모 0.5ha 미만 농가가 지급하는 임차료 중 10~12월 동안에 지급하는 물량 비중이 77.1% 수준이나 3ha 이상 농가는 93.6%로 매우 높다. 전반적으로 임차료 지급은 수확기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규모별로 살펴본 월별 판매량 비율 역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확기 판매량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은 46.0%, 0.5ha에서 1.0ha의 농가들은 70.7%, 1.0ha에서 2.0ha의 농가들은 66.1%, 2.0ha에서 3.0ha의 농가들은 69.8%, 3.0ha 이상의 농가들은 71.6%를 10~12월 사이에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는 성출하기 판매 비중이 높고 단경기로 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계절진폭으로 인한 추가소득을 얻기 위해 단경기 판매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경영규모가 적은 농가의 단경기 판매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2. 경영규모별 용도별 월평균 소비량

단위: kg

규모 \ 용도	자가소비						판매
	계	식량	종여	임차료	기타		
0.5ha 미만	48.9	31.0	14.9	1.0	2.1	22.9	
0.5ha~1.0ha	71.5	32.8	22.7	10.6	5.5	93.4	
1.0ha~2.0ha	91.8	34.6	27.9	20.4	8.9	222.0	
2.0ha~3.0ha	128.8	39.1	25.0	50.1	14.6	370.1	
3.0ha 이상	208.3	43.6	38.0	105.1	21.6	996.7	
농가 평균	94.1	34.9	24.6	26.0	8.6	244.6	

표 2-13. 경영규모별 월별 식량용 소비량

단위: kg, (%)

월 \ 규모	0.5ha 미만	0.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평균
11	29.4 (7.9)	32.4 (8.2)	33.4 (8.0)	39.6 (8.4)	43.4 (8.3)	34.0 (8.1)
12	30.9 (8.3)	33.4 (8.5)	35.6 (8.6)	39.7 (8.5)	45.8 (8.8)	35.6 (8.5)
1	38.1 (10.3)	40.6 (10.3)	45.1 (10.9)	50.5 (10.8)	54.3 (10.4)	44.1 (10.6)
2	27.7 (7.5)	29.1 (7.4)	30.8 (7.4)	35.1 (7.5)	39.8 (7.6)	31.1 (7.4)
3	30.1 (8.1)	31.2 (7.9)	32.6 (7.9)	39.3 (8.4)	41.5 (7.9)	33.4 (8.0)
4	29.3 (7.9)	30.4 (7.7)	32.8 (7.9)	36.9 (7.9)	41.1 (7.8)	32.8 (7.8)
5	30.2 (8.1)	31.5 (8.0)	33.2 (8.0)	38.0 (8.1)	42.1 (8.0)	33.7 (8.0)
6	29.5 (7.9)	31.1 (7.9)	32.7 (7.9)	36.8 (7.9)	40.4 (7.7)	33.0 (7.9)
7	31.1 (8.4)	33.3 (8.5)	33.4 (8.0)	37.1 (7.9)	43.3 (8.3)	34.4 (8.2)
8	31.7 (8.5)	32.9 (8.4)	33.9 (8.2)	38.1 (8.1)	43.5 (8.3)	34.7 (8.3)
9	31.3 (8.4)	33.0 (8.4)	35.2 (8.5)	39.1 (8.3)	44.0 (8.4)	35.3 (8.4)
10	32.4 (8.7)	34.0 (8.6)	36.7 (8.8)	38.8 (8.3)	44.6 (8.5)	36.2 (8.7)
계	371.6 (100.0)	393.0 (100.0)	415.3 (100.0)	469.1 (100.0)	523.9 (100.0)	418.3 (100.0)

표 2-14. 경영규모별 월별 증여량

단위: kg, (%)

월 \ 규모	0.5ha 미만	0.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평균
11	21.6 (12.1)	45.4 (16.7)	62.5 (18.8)	34.3 (11.3)	143.5 (31.2)	54.2 (18.3)
12	11.4 (6.4)	27.3 (10.0)	37.6 (11.3)	44.0 (14.5)	31.6 (6.9)	30.2 (10.2)
1	15.3 (8.6)	34.9 (12.8)	32.7 (9.8)	26.9 (8.9)	64.9 (14.1)	32.0 (10.8)
2	5.4 (3.0)	11.6 (4.3)	21.4 (6.4)	19.5 (6.4)	6.1 (1.3)	14.3 (4.8)
3	12.7 (7.1)	16.0 (5.9)	13.7 (4.1)	17.0 (5.6)	11.1 (2.4)	14.2 (4.8)
4	8.5 (4.8)	10.1 (3.7)	15.7 (4.7)	11.5 (3.8)	12.1 (2.6)	12.0 (4.1)
5	11.5 (6.5)	13.9 (5.1)	17.6 (5.3)	21.5 (7.1)	17.0 (3.7)	15.9 (5.4)
6	33.3 (18.7)	16.6 (6.1)	16.9 (5.1)	8.6 (2.9)	23.1 (5.0)	20.0 (6.8)
7	11.1 (6.2)	13.1 (4.8)	16.1 (4.8)	22.4 (7.4)	21.1 (4.6)	15.6 (5.3)
8	14.4 (8.1)	16.9 (6.2)	25.1 (7.5)	17.0 (5.6)	27.8 (6.0)	20.3 (6.9)
9	9.7 (5.5)	19.9 (7.3)	29.4 (8.8)	21.7 (7.2)	43.0 (9.3)	23.5 (8.0)
10	23.0 (12.9)	46.3 (17.0)	44.4 (13.3)	58.3 (19.3)	59.1 (12.8)	43.4 (14.7)
계	177.8 (100.0)	272.0 (100.0)	333.1 (100.0)	302.8 (100.0)	460.2 (100.0)	295.7 (100.0)

표 2-15. 경영규모별 월별 임차료 지급량

단위: kg, (%)

월 \ 규모	0.5ha 미만	0.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평균
11	1.0 (8.7)	35.7 (27.8)	95.2 (39.5)	239.2 (38.9)	489.8 (38.3)	116.0 (37.2)
12	1.0 (9.0)	12.9 (10.1)	30.5 (12.6)	50.1 (8.1)	262.0 (20.5)	43.9 (14.1)
1	0.0 (0.0)	0.0 (0.0)	5.5 (2.3)	37.3 (6.1)	19.6 (1.5)	8.3 (2.7)
2	0.0 (0.0)	3.5 (2.7)	2.2 (0.9)	1.1 (0.2)	12.9 (1.0)	2.8 (0.9)
3	0.0 (0.0)	0.0 (0.0)	0.8 (0.3)	0.5 (0.1)	3.0 (0.2)	0.6 (0.2)
4	2.6 (22.9)	0.1 (0.0)	1.8 (0.8)	6.4 (1.0)	11.4 (0.9)	3.0 (1.0)
5	0.0 (0.0)	0.0 (0.0)	0.8 (0.3)	0.1 (0.0)	7.2 (0.6)	1.0 (0.3)
6	0.0 (0.0)	2.1 (1.6)	4.2 (1.7)	4.4 (0.7)	4.7 (0.4)	2.9 (0.9)
7	0.0 (0.0)	0.1 (0.1)	2.9 (1.2)	0.9 (0.1)	0.0 (0.0)	1.1 (0.3)
8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9	0.0 (0.0)	2.7 (2.1)	22.4 (9.3)	31.0 (5.0)	22.1 (1.7)	14.1 (4.5)
10	6.7 (59.4)	71.2 (55.5)	74.7 (31.0)	243.6 (39.6)	444.6 (34.8)	118.2 (37.9)
계	11.4 (100.0)	128.2 (100.0)	241.1 (100.0)	614.4 (100.0)	1,277.3 (100.0)	312.0 (100.0)

표 2-16. 경영규모별 월별 판매량

단위: kg,(%)

월 \ 규모	0.5ha 미만	0.5~1.0ha	1.0~2.0ha	2.0~3.0ha	3.0ha 이상	평균
11	51.5 (18.0)	339.2 (30.2)	744.9 (28.2)	1,438.7 (31.9)	3,186.6 (26.4)	818.7 (27.9)
12	12.3 (4.5)	127.3 (11.3)	329.3 (12.5)	523.1 (11.6)	2,186.1 (18.1)	411.2 (14.0)
1	8.8 (3.2)	21.8 (1.9)	68.7 (2.6)	113.3 (2.5)	646.9 (5.4)	103.7 (3.5)
2	3.8 (1.4)	46.2 (4.1)	79.4 (3.0)	83.9 (1.9)	387.0 (3.2)	83.2 (2.8)
3	25.6 (9.3)	42.2 (3.8)	93.8 (3.6)	169.9 (3.8)	277.0 (2.3)	93.9 (3.2)
4	26.0 (9.5)	22.0 (2.0)	145.1 (5.5)	194.8 (4.3)	303.3 (2.5)	112.6 (3.8)
5	21.8 (7.9)	34.7 (3.1)	66.8 (2.5)	77.9 (1.7)	358.8 (3.0)	81.1 (2.8)
6	24.1 (8.8)	23.1 (2.1)	47.2 (1.8)	87.4 (1.9)	92.2 (0.8)	46.2 (1.6)
7	7.3 (2.7)	24.5 (2.2)	39.5 (1.5)	134.2 (3.0)	265.1 (2.2)	64.7 (2.2)
8	9.2 (3.4)	42.3 (3.8)	126.5 (4.8)	78.6 (1.7)	106.4 (0.9)	74.3 (2.5)
9	21.7 (7.9)	70.8 (6.3)	227.2 (8.6)	418.3 (9.3)	971.8 (8.1)	249.0 (8.5)
10	62.1 (22.7)	328.1 (29.2)	671.3 (25.4)	1,183.6 (26.3)	3,267.2 (27.1)	797.3 (27.2)
계	274.2 (100.0)	1,122.1 (100.0)	2,639.8 (100.0)	4,503.7 (100.0)	12,048.4 (100.0)	2,935.9 (100.0)

5.2. 지역별 소비량

농가 단위의 용도별, 시기별 소비량 패턴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2-17~2-21>. 전북과 전남 지역의 농가 단위의 월 평균 소비량은 128.8kg과 94.9kg으로 타 도의 80~88kg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두 지역에서 농가 단위 소비량이 많은 것은 증여량과 임차료 지급량, 기타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증여량은 31.2kg으로 전국 평균 23.8kg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또한 전북 지역의 농가당 임차료 지급량도 39.2kg으로 전국 평균 23.1kg보다 높은 수준이다.

농가당 월별 판매량은 전북이 392.1kg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경남의 131.0kg보다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식량용 소비량 월별 비중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8%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관계없이 설날과 추석에 속해 있는 월의 소비량 비중이 다소 높다.

경기와 강원지역의 경우 총증여량 중 10~11월 동안 증여비율이 33.7%와 40.8%로 전국평균 31.1%보다 높은 편이다. 경북 지역의 11월 증여량 비중이 22.8%로 전국 평균 17.5%보다 높는데 이는 산간지역의 특성상 수확이 빨라 증여량 비중도 이 시기에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0월부터 12월 동안 지급하는 임차료 비중이 90% 정도로 높으며 단경기인 8월까지 소량이나마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전남, 경남지역의 10월 임차료 지급량 비중은 50% 내외 수준이며, 충남과 전북지역의 11월 임차료 비중은 43~44%로 높은 편이다. 경북 지역의 12월 임차료 지급량 비중은 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월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9월의 판매량 비중이 가장 높

은 곳은 강원도로 20.2%에 이른다. 이는 전북지역의 5.1%, 전남 3.8%, 경북 2.3%, 경남 3.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조생종 생산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수확 시기가 타 지역에 비해 빠르므로 9월 판매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부권에 속하는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의 경우 10월, 11월의 판매량 비중이 높은 반면 12월 판매량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수확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남부지역의 12월 출하량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관계없이 단경기에도 일정물량을 판매하며 7~8월 판매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7. 지역별 용도별 농가당 소비량(2001~02년 평균)

단위: kg

용도 시도	자가소비					판매
	계	식량	증여	임차료	기타	
경기	85.3	34.9	20.7	22.9	6.7	217.4
강원	88.6	33.5	18.9	23.0	13.3	229.9
충북	82.6	34.7	20.6	18.7	8.7	223.7
충남	86.6	36.2	21.7	16.3	12.5	255.5
전북	128.8	36.0	27.1	39.2	26.5	392.1
전남	94.9	31.6	31.2	23.3	8.8	265.4
경북	79.5	33.8	24.9	16.0	4.8	184.4
경남	85.4	32.2	24.4	24.5	4.3	131.0
전국 평균	91.8	34.1	23.8	23.1	10.8	238.4

표 2-18. 지역별 월별 식량용 비중

단위: kg, (%)

월 \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균
11	34.3 (8.2)	33.2 (8.3)	35.1 (8.4)	35.0 (8.1)	34.8 (8.1)	30.4 (8.0)	33.3 (8.2)	31.3 (8.1)	33.4 (8.2)
12	37.0 (8.8)	34.4 (8.6)	35.5 (8.5)	36.2 (8.3)	36.1 (8.4)	31.7 (8.4)	33.9 (8.4)	32.9 (8.5)	34.7 (8.5)
1	39.7 (9.5)	38.3 (9.5)	40.8 (9.8)	41.6 (9.6)	41.5 (9.6)	36.5 (9.6)	37.1 (9.2)	37.9 (9.8)	39.2 (9.5)
2	35.7 (8.5)	33.7 (8.4)	36.9 (8.8)	39.0 (9.0)	36.1 (8.4)	31.8 (8.4)	32.7 (8.1)	33.0 (8.5)	34.9 (8.5)
3	33.6 (8.0)	32.3 (8.0)	33.2 (8.0)	35.3 (8.1)	34.9 (8.1)	30.6 (8.1)	32.0 (7.9)	30.9 (8.0)	32.9 (8.0)
4	32.7 (7.8)	30.9 (7.7)	33.5 (8.0)	34.2 (7.9)	34.3 (7.9)	29.8 (7.9)	31.4 (7.7)	29.6 (7.7)	32.0 (7.8)
5	33.9 (8.1)	32.6 (8.1)	33.2 (8.0)	36.1 (8.3)	38.5 (8.9)	30.4 (8.0)	32.8 (8.1)	30.3 (7.9)	33.5 (8.2)
6	33.1 (7.9)	31.3 (7.8)	32.5 (7.8)	34.1 (7.9)	33.3 (7.7)	29.6 (7.8)	32.5 (8.0)	29.9 (7.8)	32.0 (7.8)
7	34.1 (8.1)	33.1 (8.2)	33.2 (8.0)	35.2 (8.1)	35.5 (8.2)	30.7 (8.1)	33.9 (8.4)	32.5 (8.4)	33.5 (8.2)
8	34.4 (8.2)	34.0 (8.5)	34.3 (8.2)	34.7 (8.0)	35.6 (8.2)	31.0 (8.2)	35.0 (8.6)	32.4 (8.4)	33.9 (8.3)
9	35.4 (8.5)	35.2 (8.7)	34.8 (8.4)	37.1 (8.5)	36.1 (8.4)	34.1 (9.0)	35.1 (8.7)	33.5 (8.7)	35.2 (8.6)
10	35.3 (8.4)	32.8 (8.2)	33.6 (8.1)	35.4 (8.2)	35.4 (8.2)	32.8 (8.6)	35.6 (8.8)	32.1 (8.3)	34.1 (8.3)
계	419.2 (100.0)	401.9 (100.0)	416.5 (100.0)	433.9 (100.0)	432.0 (100.0)	379.5 (100.0)	405.3 (100.0)	386.4 (100.0)	409.3 (100.0)

표 2-19. 지역별 월별 증여량

단위: kg.(%)

월 \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균
11	50.5 (20.3)	46.2 (20.4)	33.6 (13.6)	40.9 (15.7)	68.5 (21.1)	64.0 (17.1)	68.0 (22.8)	27.6 (9.4)	50.0 (17.5)
12	24.8 (10.0)	20.5 (9.1)	23.7 (9.6)	27.1 (10.4)	45.9 (14.1)	53.5 (14.3)	24.6 (8.2)	25.0 (8.5)	30.9 (10.9)
1	20.6 (8.3)	18.3 (8.1)	25.2 (10.2)	14.5 (5.6)	19.6 (6.0)	41.0 (11.0)	23.4 (7.8)	32.6 (11.1)	24.5 (8.5)
2	19.6 (7.9)	14.2 (6.3)	22.3 (9.0)	18.5 (7.1)	32.4 (10.0)	24.6 (6.6)	24.3 (8.1)	24.0 (8.2)	22.6 (8.0)
3	18.3 (7.4)	10.7 (4.7)	11.4 (4.6)	11.5 (4.4)	15.9 (4.9)	15.3 (4.1)	14.0 (4.7)	20.5 (7.0)	14.8 (5.2)
4	7.4 (3.0)	6.2 (2.7)	14.2 (5.7)	13.7 (5.3)	10.3 (3.2)	17.5 (4.7)	12.4 (4.2)	18.5 (6.3)	12.6 (4.4)
5	11.2 (4.5)	8.0 (3.6)	11.1 (4.5)	17.9 (6.9)	7.3 (2.2)	23.7 (6.3)	15.3 (5.1)	18.9 (6.4)	14.2 (5.0)
6	11.2 (4.5)	9.5 (4.2)	14.4 (5.8)	35.2 (13.5)	13.7 (4.2)	13.7 (3.7)	13.9 (4.7)	20.5 (7.0)	16.6 (5.8)
7	12.6 (5.1)	14.0 (6.2)	11.6 (4.7)	17.9 (6.9)	9.4 (2.9)	18.5 (5.0)	18.1 (6.1)	15.6 (5.3)	14.7 (5.2)
8	22.1 (8.9)	15.0 (6.6)	19.0 (7.7)	11.1 (4.3)	17.6 (5.4)	25.1 (6.7)	30.8 (10.3)	18.2 (6.2)	19.9 (7.0)
9	16.6 (6.7)	17.4 (7.7)	26.7 (10.8)	23.8 (9.2)	30.6 (9.4)	20.9 (5.6)	25.1 (8.4)	42.0 (14.3)	25.5 (9.0)
10	33.4 (13.4)	46.2 (20.4)	33.9 (13.7)	28.1 (10.8)	53.3 (16.4)	55.8 (14.9)	28.9 (9.7)	29.9 (10.2)	38.9 (13.6)
계	248.4 (100.0)	226.2 (100.0)	247.1 (100.0)	260.3 (100.0)	324.3 (100.0)	373.7 (100.0)	298.8 (100.0)	293.1 (100.0)	285.0 (100.0)

표 2-20. 지역별 월별 임차료 지급량

단위: kg, (%)

월 \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균
11	93.8 (34.2)	80.6 (29.5)	42.0 (18.8)	85.1 (43.2)	204.9 (43.7)	86.4 (30.9)	60.1 (31.3)	91.4 (31.0)	94.1 (33.5)
12	13.5 (4.9)	33.4 (12.2)	65.3 (29.1)	62.5 (31.7)	125.9 (26.8)	32.3 (11.6)	82.7 (43.0)	36.9 (12.5)	56.9 (21.4)
1	3.8 (1.4)	0.0 (0.0)	5.7 (2.5)	1.1 (0.6)	20.8 (4.4)	4.2 (1.5)	5.7 (3.0)	2.1 (0.7)	5.5 (1.9)
2	7.4 (2.7)	4.5 (1.6)	13.8 (6.1)	0.0 (0.0)	1.2 (0.3)	1.1 (0.4)	2.3 (1.2)	2.6 (0.9)	4.0 (1.5)
3	0.3 (0.1)	0.0 (0.0)	1.1 (0.5)	0.0 (0.0)	2.3 (0.5)	0.0 (0.0)	0.6 (0.3)	1.1 (0.4)	0.7 (0.3)
4	0.8 (0.3)	1.1 (0.4)	8.3 (3.7)	0.0 (0.0)	5.2 (1.1)	1.6 (0.6)	0.3 (0.1)	0.0 (0.0)	2.2 (0.8)
5	0.0 (0.0)	0.0 (0.0)	2.5 (1.1)	0.5 (0.3)	1.0 (0.2)	0.0 (0.0)	0.0 (0.0)	0.3 (0.1)	0.5 (0.2)
6	0.5 (0.2)	0.0 (0.0)	8.1 (3.6)	0.0 (0.0)	3.3 (0.7)	0.5 (0.2)	0.7 (0.4)	1.8 (0.6)	1.9 (0.6)
7	6.8 (2.5)	0.0 (0.0)	0.7 (0.3)	0.3 (0.1)	0.5 (0.1)	0.0 (0.0)	0.6 (0.3)	0.1 (0.0)	1.1 (0.4)
8	2.2 (0.8)	0.0 (0.0)	0.0 (0.0)	0.2 (0.1)	0.0 (0.0)	0.0 (0.0)	0.0 (0.0)	0.0 (0.0)	0.3 (0.1)
9	6.3 (2.3)	20.7 (7.6)	16.4 (7.3)	0.5 (0.3)	12.0 (2.6)	1.6 (0.6)	0.6 (0.3)	2.8 (1.0)	7.6 (2.5)
10	139.0 (50.6)	133.1 (48.7)	60.2 (26.9)	46.9 (23.8)	91.8 (19.6)	151.5 (54.3)	38.7 (20.1)	155.9 (52.8)	102.7 (36.9)
계	274.5 (100.0)	273.5 (100.0)	224.0 (100.0)	197.2 (100.0)	469.0 (100.0)	279.3 (100.0)	192.2 (100.0)	295.0 (100.0)	277.5 (100.0)

표 2-21. 지역별 월별 판매량

단위: kg, (%)

월 \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균
11	761.5 (29.2)	630.2 (22.9)	558.5 (20.8)	679.6 (22.1)	1,253.3 (26.7)	946.7 (29.8)	715.1 (32.4)	543.5 (34.5)	765.8 (26.8)
12	197.3 (7.6)	221.4 (8.0)	331.3 (12.3)	728.3 (23.6)	867.0 (18.5)	800.1 (25.2)	667.1 (30.2)	322.2 (20.5)	520.2 (18.3)
1	82.8 (3.2)	52.5 (1.9)	66.2 (2.5)	133.9 (4.3)	411.5 (8.8)	102.9 (3.2)	166.3 (7.5)	86.6 (5.5)	139.9 (4.9)
2	133.1 (5.1)	76.4 (2.8)	58.9 (2.2)	33.4 (1.1)	115.0 (2.5)	143.4 (4.5)	45.9 (2.1)	39.0 (2.5)	81.2 (2.8)
3	122.4 (4.7)	48.3 (1.8)	91.6 (3.4)	84.0 (2.7)	161.9 (3.4)	69.8 (2.2)	72.6 (3.3)	24.8 (1.6)	84.9 (3.0)
4	81.0 (3.1)	70.2 (2.5)	62.3 (2.3)	112.1 (3.6)	139.7 (3.0)	43.5 (1.4)	41.1 (1.9)	72.2 (4.6)	78.2 (2.7)
5	36.4 (1.4)	33.9 (1.2)	49.8 (1.9)	89.3 (2.9)	69.5 (1.5)	83.0 (2.6)	86.4 (3.9)	40.9 (2.6)	61.2 (2.1)
6	73.0 (2.8)	85.4 (3.1)	24.1 (0.9)	64.3 (2.1)	90.9 (1.9)	14.2 (0.4)	30.3 (1.4)	26.3 (1.7)	51.2 (1.8)
7	26.0 (1.0)	35.2 (1.3)	60.8 (2.3)	111.6 (3.6)	132.2 (2.8)	24.8 (0.8)	41.7 (1.9)	51.7 (3.3)	60.9 (2.1)
8	75.8 (2.9)	38.6 (1.4)	78.0 (2.9)	113.9 (3.7)	72.4 (1.5)	40.7 (1.3)	54.7 (2.5)	63.5 (4.0)	67.3 (2.3)
9	83.7 (3.2)	556.2 (20.2)	146.8 (5.5)	257.8 (8.4)	238.7 (5.1)	120.5 (3.8)	51.2 (2.3)	55.2 (3.5)	186.7 (6.5)
10	933.2 (35.8)	904.5 (32.9)	1,155.6 (43.1)	672.8 (21.8)	1,141.5 (24.3)	791.6 (24.9)	237.9 (10.8)	247.5 (15.7)	761.9 (26.6)
계	2,606.2 (100.0)	2,752.7 (100.0)	2,683.9 (100.0)	3,081.0 (100.0)	4,693.6 (100.0)	3,181.0 (100.0)	2,210.1 (100.0)	1,573.2 (100.0)	2,859.3 (100.0)

부록 1.

함평군 3개 RPC별, 일자별 벼 매입량(가마/조곡 40kg)

	H RPC	S RPC	N RPC
2002. 10. 12		130	
10. 13		690	68
10. 14		550	155
10. 15		1256	370
10. 16		1561	650
10. 17		1132	380
10. 18		1476	210
10. 19		2390	450
10. 20		2178	459
10. 21		1883	675
10. 22		2567	540
10. 23		1910	474
10. 24		1589	560
10. 25	540	2305	845
10. 26		1965	650
10. 27		2258	590
10. 28		1636	920
10. 29		2100	750
10. 30		3543	1150
10. 31		2513	950
11. 01	1,205	150	1290
11. 02	340	230	823
11. 03	550		550
11. 04			950
11. 05		125	1510
11. 06		250	423
11. 07	250		1025
11. 08	657	59	65
11. 09			1110
11. 10	390	289	877
11. 11	450	750	678
11. 12	270	45	1156
11. 13	668		560
11. 14	120	110	255
11. 15			450

함평군 3개 RPC별, 일자별 벼 매입량(계속)

	H RPC	S RPC	N RPC
11. 16	489		350
11. 17		200	554
11. 18			860
11. 19	550	260	1250
11. 20	420		240
11. 21	350		350
11. 22	650	554	1350
11. 23			
11. 24		250	210
11. 25	568		360
11. 26	360	320	
11. 27			450
11. 28	259		388
11. 29	125		350
11. 30		360	590
11. 31			
12. 01	1,245		450
12. 02	1,508		1250
12. 03	1,250	420	650
12. 04	1,013	320	1239
12. 05	875	35	985
12. 06	650	250	250
12. 07	1,250	550	1687
12. 08	950	115	1256
12. 09	525	240	1523
12. 10	1360	350	1850
12. 11	550	550	550
12. 12	1,505		260
12. 13	1,250	275	963
12. 14	1,670	750	1655
12. 15	990		1325
12. 16	850	70	520
12. 17	780	50	1350
12. 18	825	65	450
12. 19	995		1238
12. 20	890	280	14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함평군 3개 RPC별, 일자별 벼 매입량(계속)

	H RPC	S RPC	N RPC
2002. 12. 21	1,125	150	725
12. 22	976	260	1226
12. 23	950	120	1120
12. 24	1,590		
12. 25			
12. 26	1,569		
12. 27	650	210	1,545
12. 28	325	350	1,454
12. 29	521	174	1,257
12. 30	1,050	250	488
12. 31			
2003. 01. 01			
01. 02			
01. 03			
01. 04			
01. 05			
01. 06			
01. 07			
01. 08			120
01. 09			
01. 10	55		62
01. 11		25	
01. 12			50
01. 13		35	
01. 14	40	115	
01. 15	25		52
01. 16		20	120
01. 17		35	47
01. 18	35		55
01. 19		100	26
01. 20	150	55	
01. 29		248	25
01. 30		421	
01. 31			



제 3 장

미곡 판매 실태

1. 조사 개요

1.1. 조사 규모

통계청은 농가당 용도별 양곡 소비량을 조사하고 있으나 농가가 어디에 어느 정도를 판매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양곡소비량 조사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처별 판매량을 파악하는 것이 자료의 일관성 유지에 바람직하지만 통계법상 자료공개의 제약으로 양곡 소비량 조사 농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농가의 미곡 판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안적으로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하였다.

2003년 10월 6일~9일 동안 516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응답내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25개의 관측치를 제외하고 491 농가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491농가 중 강원지역이 8.8%인 43농가로 가장 낮고, 농도인 전남 지역이 74 농가로 15.1%를

표 3-1. 조사 대상 농가 개요

경영면적(ha)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0.5 미만	2	10	4	7	6	9	8	7	53
0.5~1.0	13	10	22	15	8	22	28	16	134
1.0~1.5	13	5	3	11	10	10	10	11	73
1.5~2.0	14	5	5	11	14	11	12	17	89
2.0~2.5	3	2	2	5	3	5	4	3	27
2.5~3.0	4	1	4	2	8	6	5	5	35
3.0~5.0	8	5	4	6	11	9	3	7	53
5.0 이상	3	5	3	6	4	2	1	3	27
계	60	43	47	63	64	74	71	69	491

점유하였다. 경영규모 1.0ha 미만 농가 비중은 38% 정도이다.

당 연구원 현지통신원 1,675농가 중 491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서 허용 오차 범위는 $\pm 2.2\%$ 포인트이다.¹²

1.2. 조사 내용

2002년산의 쌀(벼 포함) 판매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농가들이 쌀 판매처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판매처별 물량 비중은 어떤지? 판매처 변동이 있었는지와 향후 주요 판매처 선택 요인 및 분야는 어떤지’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농가별 판매처별 물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타를 포함한 7개의 주요 벼 판매처별(임도정공장, 미곡종합처리장(농협, 민간 포함), 산지

¹² 응답비율은 $0.29(491/1,675)$ 로 허용오차는 $\pm 1.96 \times [(0.29) \times (1-0.29)/1,675]^{1/2} \times 100$ 임.

벼 수집상, 소비지 도소매상, 직거래, 농협)로 판매물량 비율을 조사하였다. 또한 2002년에 판매한 업체들 중 가격, 판매, 운반, 현금화, 신뢰성과 안전성이 가장 좋았던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최근 5년간 판매처를 변경한 경험이 있다면, 증가한 업체와 감소한 업체를 각각 응답하게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다. 또한 올해(2003년) 수확기부터 판매처 변경 여부를 물어 보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판매처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응답을 요구하였다.

전화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경북 상주와, 충남 연무 지역의 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조사표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2. 판매처 선택 요인

농가들이 판매처를 선택할 때 어떤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높은 가격, 판매 용이성, 현금화 용이성, 거래 지속성, 운반 용이성, 신뢰(안정)성 등을 제시하고 우선순위로 3개 항목 선택을 요청하였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에 각각 3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최종적인 선호 순서를 분석하였다 <표 3-2>.

농가는 높은 가격, 판매 용이성, 현금화 용이성의 순서로 판매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판매 용이성이 높은 선호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사회에서 농가가 산물벼를 쉽게 출하할 수 있는 판매처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가 2002년산 벼를 판매한 경험에 비추어 판매처, 요인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가격, 판매 용이성, 현금화 용이성, 운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용이성, 신뢰도의 모든 부문에서 농가는 RPC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표 3-3>.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도 농가의 RPC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면에 있어서 RPC 다음으로 직거래와 농협 판매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매에 있어서 RPC 다음으로 임도정공장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소규모 임도정업체가 산지유통에서 일정 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RPC를 소유하지 않은 농협 의존도가 임도정공장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금화의 만족도는 RPC 다음으로 임도정공장과 직거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벼 수집상이나 도소매상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들에 대해 신뢰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판매처별 선호요인

선호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점수	비율(%)
높은 가격	205	45.5	42	9.5	25	5.9	724	27.2
판매 용이	111	24.6	110	24.9	59	13.9	612	23.0
현금화 용이	37	8.2	83	18.8	114	26.9	391	14.7
거래 지속성	41	9.1	62	14	96	22.6	343	12.9
운반 용이성	31	6.9	81	18.3	60	14.2	315	11.8
신뢰(안전)성	26	5.8	64	14.5	70	16.5	276	10.4
합계	451	100.0	442	100.0	424	100.0	2661	100.0

표 3-3. 판매처별 만족도

단위: %

판매처	가격	판매	현금화	운반	신뢰도
임도정공장	15.5	19.3	17.4	18.5	15.8
RPC	34.2	39.5	37.8	38.5	40.3
벼 수집상	6.2	7.1	6.1	8.8	5
도소매상	6.7	7.1	6.1	6.7	5
직거래	16.3	9.7	13.1	10.2	12.7
농협	16.3	13.3	15	13.3	17.2
기타	4.7	3.9	4.6	4	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 판매처, 지역별 판매량

3.1. 판매처별 판매량 비중

농가의 벼 판매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농가의 만족도와 비례한 RPC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의 41% 정도가 RPC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PC 다음으로 임도정업체가 시중출하량의 20% 정도를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상 및 기타와 산지 수집상 출하 비중은 각각 16.2%와 1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상 및 기타 비중이 높은 것은 기타에 포함되는 직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농가 단위에서 수취가격을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쌀을 생산 및 관리하여 통신판매 및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직거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산지수집상 비중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들어 RPC가 수확기 원료곡 매입량을 축소하고 단경기 원

료곡 매입량을 늘리는 데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현지를 방문하여 RPC 경영자의 면담결과 최근 2~3년 사이 벼 수집상 역할이 증가하였다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RPC 경영자는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한 가격 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확기 원료곡 매입량을 줄이는 대신 단경기 매입량을 늘리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벼 매입과 판매가 가능한 산지수집상의 역할이 생기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조사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판매처 분류, 조사 대상 및 방법의 차이, 비표본오차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윤석원외(2002)가 조사한 미곡 판매처별 물량 비율의 경우, RPC는 일반RPC(비농협)만을 대상으로 하며 농협은 농협RPC와 양곡사업을 하는 단위조합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RPC는 일반사업자(민간RPC)와 농협RPC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농협은 RPC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양곡사업을 하는 농협을 의미한다.

윤석원외(2002)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지역의 211농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지역 특성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하여 다소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표 3-4. 판매처별 비중 변화(%)

판매처	1967 ¹⁾	1978 ¹⁾	1989 ¹⁾	1992 ¹⁾	1998 ¹⁾	2002 ²⁾	2002 (본조사)
RPC	-	-	-	-	7.9	9.1	41.1
농협	-	7.2	18.5	27.0	45.1	51.0	10.7
임도정업체	25.9	20.8	30.0	37.8	37.5	31.7	20.4
산지수집상	17.1	26.3	17.1	17.2	4.7	2.9	11.6
도소매상, 기타	57.0	45.6	34.4	18.0	4.8	2.3	16.2
계	100.0	100.0	100.1	100.0	100.0	100.0	100.0

주: 1998년, 2002년도 조사결과 중 RPC 비중은 일반RPC, 농협 비중은 농협RPC를 포함.

자료 1) 윤석원(2001), “쌀 유통 현황 및 발전방안”에서 인용.

2) 윤석원·김근영(2002), “쌀 유통 실태 및 개선 방향”에서 인용.

3.2. 지역별, 판매처별 비중

시장출하 물량 중 RPC 비중이 전국 평균 41.1%이나 강원도는 73.0%, 전북은 24.4%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쌀 생산량이 많은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RPC 출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농가가 RPC도입 이전에 거래해 온 일반도정 업체나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RPC 비중이 낮은 반면 농협을 포함한 도정업체 출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남 지역의 농협 출하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도별로 산지 수집상 판매 비율이 2~5% 정도로 낮지만 충남과 전북 지역이 각각 32.9%와 16.4%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기미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산지수집상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역일 수 있다. 또한 전북 지역의 쌀도 미질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 부분 수집상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3-5. 도별, 판매처별 물량 비중(%)

판매처 시도	RPC	도정 업체	농협	산지 수집상	도소 매상	직거래	기타	계
경기	48.1	16.4	2.0	2.0	13.5	16.8	1.2	100.0
강원	73.0	10.6	2.2	1.8	2.1	9.0	1.3	100.0
충북	55.9	13.3	3.7	7.2	0.1	15.0	4.6	100.0
충남	26.3	23.3	6.4	32.9	0.8	7.0	3.3	100.0
전북	24.4	35.5	14.4	16.4	5.3	2.7	1.2	100.0
전남	35.5	8.4	40.9	3.0	9.2	1.7	1.3	100.0
경북	51.4	13.9	3.4	4.2	11.0	16.1	0.0	100.0
경남	42.0	30.6	11.5	5.1	2.3	2.3	2.6	100.0
전체	41.1	20.4	10.7	11.6	5.8	8.3	2.1	100.0

전국적으로 농가가 직거래로 판매하는 비중이 8.3% 수준이나 경기, 충북, 경북 지역의 직거래 비중은 15~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볼 때 RPC 출하비중이 높아 정부가 RPC 중심으로 유통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RPC와 일반 도정업체, 산지수집상 및 기타 판매처 간 경쟁관계가 유지되는 곳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3. 경영규모별 판매처별 비중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RPC와 임도정업체 출하 비중이 높으나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RPC 출하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도정업체, 직거래, 산지수집상 등 다양한 판매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ha 미만의 농가가 RPC에 출하하는 비중은 50% 내외로 전국 평균 41%보다 높지만 3.0ha 이상 농가의 RPC 출하 비중은 29.5%로 낮다. 경영규모가 큰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직거래로 판매하는 비율이 14.3%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 경영규모별, 판매처별 물량 비중(%)

판매처 규모(ha)	임도정 공장	RPC	산지 수집상	도소 매상	직거래	농협	기타	계
0.5 미만	24.1	53.6	2.5	2.4	4.2	12.8	0.4	100.0
0.5~1.0	13.7	44.9	8.2	9.9	9.5	11.5	2.3	100.0
1.0~2.0	17.2	36.3	20.9	6.5	7.2	9.0	3.0	100.0
2.0~3.0	31.1	45.8	5.7	3.2	5.5	6.8	1.9	100.0
3.0 이상	25.6	29.5	12.2	2.0	14.3	15.0	1.3	100.0
평균	20.4	41.1	11.6	5.8	8.3	10.7	2.1	100.0

4. 판매처 변경

조사 대상 491농가 중 최근 5년 동안 판매처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30% 정도인 149농가였다. 그 중 판매처별 판매비중 증가/감소에 모두 응답한 83농가만을 대상으로 판매처 변경 실태를 분석하였다.

판매처를 변경한 83농가 중 임도정공장과 RPC, 도소매상 출하 비중을 줄인 농가가 71%가 되었다. 임도정공장 출하 비중을 줄인 25농가 중 16농가가 RPC로 출하 비중을 늘렸으며 4 농가가 농협에 출하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RPC 출하 비중을 줄인 17농가 중 9농가는 임도정공장 출하 비중을 늘렸으며 3농가는 직거래 비중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지수집상과 도소매상 거래 비중을 줄인 농가 중 대부분이 RPC에 출하비중을 늘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7. 판매처 변경 실태

		감소(↓)	판매 비중 감소						계
			임도정 공장	RPC	산지 수집상	도소 매상	직거래	농협	기타
판매 비중 증가	임도정 공장	-	9	4	1	-	1	-	15
	RPC	16	-	7	12	2	1	-	38
	산지 수집상	1	2	-	-	-	-	-	3
	도소 매상	1	2	-	-	1	1	-	5
	직거래	1	3	-	1	-	1	-	6
	농협	4	1	2	2	3	-	1	13
	기타	2	-	-	1	-	-	-	3
	계	25	17	13	17	6	4	1	83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판매처를 변경한 83농가 중 36 농가가 경남 지역 농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지역은 임도정공장에서 RPC로의 판매처를 변경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경북 지역의 경우 임도정공장과 산지수집상에서 RPC로 변경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북 지역에서는 농협과 RPC로 판매처를 증가하였고, 충남의 경우 임도정공장과 RPC에서 직거래와 RPC로 판매처를 변경한 빈도가 높았다.

조사 대상 농가에게 올해 수확기 이후 판매처를 변경할 의향을 물어보았으며 그 중 31 농가가 판매처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처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은 직거래로 나타났다. 직거래 선호의 원인으로 높은 가격을 답하였다. 또한 농가는 RPC와 대도시 도소매상도 중요한 판매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판매처 변경과 요인

판매처 요인	RPC	산지 수집상	도소매 상	직거래	농협	기타	계(%)
높은 가격	3	1	4	8	1	4	21(67.7)
판매 용이	2	-	-	1	2	1	6(19.4)
현금화 용이	-	-	-	1	-	1	2(6.5)
기타	1	-	-	1	-	-	2(6.5)
계(%)	6(19.4)	1(3.2)	4(12.9)	11(35.5)	3(9.7)	6(19.4)	31(100.0)

부록 2.

농가의 미곡 유통 실태 조사	조사원		통신원 번호						
--------------------	-----	--	-----------	--	--	--	--	--	--

I. 기초자료

성함 :	연령 : ()세	성별 : ①남 ②여
주소 : 시/도	구/군	전화번호 :
동/면		

< 벼 재배 현황 >

연도	벼 재배면적(평)			생산량(40kg, 조곡)			
	총면적	임차지	임대지	총량	자가소비	정부수매량	판매량
'02							
'03							

♣ 자가소비량은 친인척 소비량을 포함합니다. 판매량은 현물로 지급하는 임차료를 포함합니다.

임차 또는 임대료가 없는 경우는 문항 p.2<IV>로 가세요

II. 임차의 경우

1. 임차료 지급방식은 어떠합니까?

(혼합의 경우 각 비율을 기입바랍니다.)

① 현물(i로 가세요) ② 현금(ii로 가세요)

③ 현금 _____% + 현물 _____%(i, ii로 가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i. 현물의 경우

1-1. 현물의 경우 300평(10a)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_____가마(조곡 40kg)

1-1-1. 현물 임차료는 전체 생산의 몇 %를 차지합니까?

_____%

☞ ii. 현금의 경우

1-2. 현금의 경우 300평(10a)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_____원

1-2-1. 전체 판매액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_____%

2. 임차료의 지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전년 수확기 ② 당해 수확기 ③ 단경기
④ 단경기+수확기(수시로) ⑤ 기타

III. 임대외의 경우

1. 임대료 수급 방식은 어떠합니까? (혼합의 각 비율을 기입바랍니다.)

- ① 현물(i로 가세요) ② 현금(ii로 가세요)
③ 현금 _____% + 현물 _____%(i, ii로 가세요)

☞ i. 현물의 경우

1-1. 현물의 경우 300평(10a)당 얼마를 받습니까?

_____가마(조곡 40kg)

1-1-1. 지급받은 현물의 시장판매량은 몇 %입니까?

_____%

☞ ii. 현금의 경우

1-2. 현금의 경우 300평(10a)당 얼마를 수급합니까?

_____원

2. 임대료의 수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전년 수확기 ② 당해 수확기 ③ 단경기
④ 단경기+수확기(수시로) ⑤ 기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V. 2002년 친인척 증여/판매

1. 친인척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쌀의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_____가마(정곡 40kg)

1-1. 유상으로 판매하는 물량은 몇 %입니까? _____%

2. 친인척 증여/판매 물량과 자가소비용 쌀의 도정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① 자가도정기 ② 임도정업체 ③ 기타()

V. 2002년 벼 판매방식

1. 판매처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을 순서대로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높은 가격() ② 판매 용이성() ③ 운반 용이성()

④ 현금화 용이성() ⑤ 신뢰성과 안전성()

⑥ 기존의 거래 지속성()

※ 아래의 보기를 중에서 적절한 답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RPC의 경우 농협과 민간을 구분 바람)

① 임도정공장

② 미곡종합처리장(RPC)(농협, 민간)

③ 산지 벼 수집상

④ 소비자도소매상

⑤ 직거래

⑥ 농협

⑦ 기타()

2. 정부 수매를 제외한 벼 판매처와 물량은?

..... (, %)(, %)(, %)(, %)

2-1. 벼 판매처 중에서 가격이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 ()

2-2. 벼 판매처 중에서 판매가 가장 용이한 곳은 어디입니까?

..... ()

2-3. 벼 판매처 중에서 운반이 가장 용이한 곳은 어디입니까?

..... ()

2-4. 벼 판매처 중에서 현금화가 가장 용이한 곳은 어디입니까?

..... ()

2-5. 벼 판매처 중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

3. 최근 5년 동안 판매처 비중이 증가한 곳은 어디입니까?

..... ()

3-1.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높은 가격 ②판매 용이성 ③운반 용이성 ④현금화 용이성
⑤신뢰성과 안전성 ⑥ 기타()

4. 최근 5년 동안 판매처 비중이 줄어든 곳은 어디입니까?

..... ()

4-1.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낮은 가격 ②판매의 불편성 ③운반 불편성 ④현금화의 어려움
⑤판매처에 대한 불신 ⑥ 기타()

5. 귀하께서는 현행 벼 판매처를 향후(2003년 수확기 부터)변경하고자 하십니까?

- ① 그렇다.(5-1.로 가세요) ② 아니다.

☞ 5-1. 어떤 판매처로 변경코자 합니까? ()

5-2. 변경코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①높은 가격 ②판매 용이성 ③운반 용이성() ④현금화 용이성
⑤신뢰성과 안전성 ⑥ 기타()

제 4 장

요약 및 결론

1. 문제 인식

생산량 중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과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는가? 농가가 수확한 벼를 모두 판매하고 필요시 식량용 쌀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가? 지역별, 경영규모별로 소비 및 판매 행태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연구자는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농가의 용도별(식용, 임차료 지급, 판매 등) 소비량 추정은 연구자별로 농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연구 결과는 조사 시기, 조사 대상 및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다 객관적으로 수요처별 소비량, 판매시기 및 농가의 미곡 판매 행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의 미곡 판매처는 RPC, 임대정업체, 산지 수집상, 대도시 도소매상 등으로 다양하나 정부의 유통업체 지원은 RPC에 집중되고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산지 쌀 시장

에서 유통업체별(RPC, 임도정업체 등) 처리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농가의 벼(또는 정곡) 판매처 선택요인은 무엇이며, 향후 변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 농가의 쌀 소비 행태

2.1. 용도별 소비량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02 양곡연도에 농가별 평균 수확량 중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과 판매량 비중은 각각 27.8%와 72.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인 생산량 중 농가 단위에서 소비량 물량 비중 33.3%와 판매량 비중 66.7%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 추정된 판매량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당 용도별 소비량 비중을 총생산량에 적용하면 농가 단위에서 소비되는 물량은 1,043만석 수준, 판매량은 2,709만석 수준이며 정부 수매량을 제외한 시장출하량은 2,024~2,262만석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 추정한 판매량은 기존 연구에서 추정한 판매량보다 207만석 많으며, 약정수매량을 제외한 시장출하량만 고려하면 89만석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판매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종자, 감모 등을 포함하는 기타 물량 구성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001~02 양곡연도 평균 종자용, 사료용, 부패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하는 기타 소비량 비중은 수확량의 3.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생산량 중 10.5% 정도가 종자 및 감모 등으로 처리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농림부가 내부 자료로 사용하는 「양정자료」

의 기타(종자 및 감모) 물량을 참고하였다. 양정자료상의 기타 물량은 사료용 및 종자용과 함께 재고량 조사결과 발생하는 오차를 기타 물량으로 처리하므로 실제 기타의 목적으로 소비되는 물량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월별 소비량

통계청이 실시 조사한 2001년산 멥쌀과 찹쌀 수확기부터 익년도 수확기까지의 용도별 소비량 자료에 의하면 수확된 벼는 당해연도 수확기부터 익년도 수확기까지 식량용, 증여, 임차료, 판매용 등으로 소비되며 농가당 연간 소비량의 62.9% 정도가 10~12월 동안에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2001년산의 경우 수확이 시작되는 9월과 10월의 식량용 소비량은 각각 35.3kg과 36.6kg인데 이 중 2000년산은 각각 34.7kg과 31.1kg으로 농가는 수확기까지 전년 산 쌀을 보유하면서 식량용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산 수확이 시작되는 9월과 10월에도 식량용으로 2001년산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노령화가 진전되고 편의성을 중시하면서 식량용으로 보유하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일부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10~12월 동안의 증여량은 전체 증여량의 35.4%(신곡 기준)를 차지하며, 명절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13~17kg을 증여하고 있다. 수확이 시작되는 9월과 10월에는 신곡과 구곡을 동시에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가 신곡을 친인척에 증여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2.3. 월별 판매량

농가의 판매량 중 양곡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판매되는 물량 비중과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판매하는 물량 비중은 각각 71.7%와

76.6%를 차지하며 익년도 10월까지 판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농가는 수확이 시작되는 10월까지도 전년 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한다는 점이다. 신곡 기준으로 10~12월 동안의 판매량은 총판매량의 69%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 판매량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연도 10~12월 또는 10~익년도 1월을 수확기라기보다는 “성출하기”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농가경제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구한 2001~02양곡연도 평균 10~12월 동안 판매량 비중은 64.8%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에 기초한 이 기간의 판매량 비중은 71.7%로 6.9%포인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10~12월 동안에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1~8월 동안의 판매량 비중은 농가경제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추정된 비중이 통계청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추정된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쌀 판매

3.1. 판매처 선택 요인

농가는 높은 가격, 판매 용이성, 현금화 용이성의 순서로 판매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용이성이 높은 선호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사회에서 농가가 산물벼를 쉽게 출하할 수 있는 판매처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는 높은 가격, 판매 용이성, 현금화 용이성, 운반 용이성, 신뢰도의 모든 부문에서 RPC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도 농가의 RPC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 면에 있어서 RPC 다음으로 직거래와 농협 판매가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매에 있어서 RPC 다음으로 임도정업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소규모 임도정업체가 산지유통에서 일정 부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3.2. 출하처별 판매량 비중

농가의 벼 판매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농가의 만족도와 비례한 RPC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의 41% 정도가 RPC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PC 다음으로는 임도정업체가 시중출하량의 20% 정도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상 및 기타와 산지 수집상 출하 비중은 각각 16.2%와 11.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출하 물량 중 RPC 비중이 전국 평균 41.1%이나 강원도는 73.0%, 전북은 24.4%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쌀 생산량이 많은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의 RPC 출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농가가 RPC 도입 이전에 거래해 온 일반도정업체나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이한 점은 도별로 산지 수집상 판매 비율이 2~5% 정도로 낮지만 충남과 전북지역이 각각 32.9%와 16.4%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기미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산지수집상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역일 수 있다. 또한 전북 지역의 쌀도 미질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 부문 수집상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RPC와 임도정업체 출하 비중이 높으나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RPC 출하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도정업체, 직거래, 산지수집상 등 다양한 판매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판매처 변경

최근 5년 동안 판매처를 변경한 83농가 중 임도정공장과 RPC, 도소매상 출하 비중을 줄인 농가가 71%가 되었다. 임도정공장 출하 비중을 줄인 25농가 중 16농가가 RPC로 출하 비중을 늘렸으며 4 농가가 농협에 출하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RPC 출하 비중을 줄인 17농가 중 9농가는 임도정공장 출하 비중을 늘렸으며 3농가는 직거래 비중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지수집상과 도소매상 거래 비중을 줄인 농가 중 대부분이 RPC에 출하비중을 늘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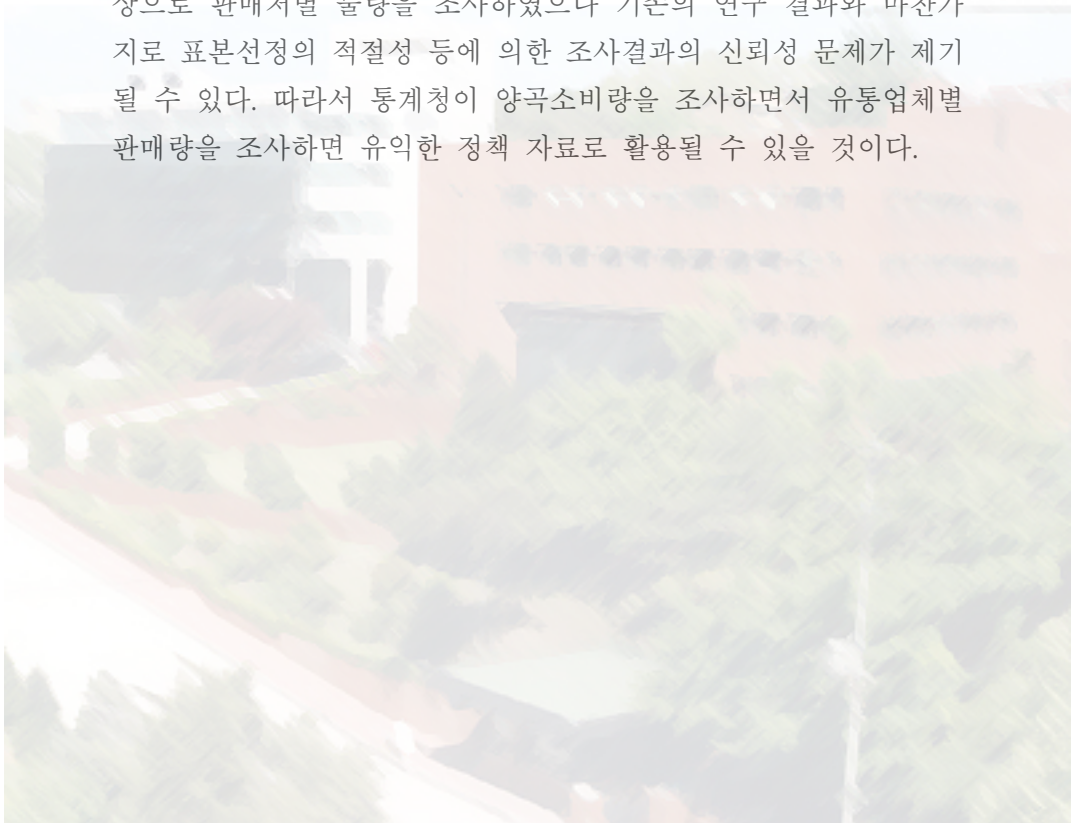
일부 농가는 향후 판매처를 변경할 의향을 보였다.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처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은 직거래로 나타났다. 직거래 선호의 원인으로 높은 가격을 답하였다. 또한 농가는 RPC와 대도시 도소매상도 중요한 판매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 연구의 장점과 한계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의 용도별, 시기별 쌀 소비 행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농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것보다는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조사는 농가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며 조사표에 의문이 생기면 면접조사를 병행하므로 조사 결과의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농가를 임의 선정하여 설문조사하는 경우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었다.

통계청은 양곡소비량 중 판매량까지만 조사하므로 농가가 어디에,

언제, 얼마나 판매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대안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판매처별 물량을 조사하였으나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본선정의 적절성 등에 의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청이 양곡소비량을 조사하면서 유통업체별 판매량을 조사하면 유익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n Analysis of Farmers' Rice Distribution

This paper sheds a light on the situations of rice consumption and sales. To analyze rice distribution the monthly and usage-based, 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 data were used by region and cultivated area. Rice sales, dealing amount and clients selection criteria for 2002 were examined by the KREI monitoring panel by phone.

The results of analyzing raw data of rice consumption survey of NSO showed that average consumption and sales proportion out of harvest from 2001 to 2002 were 27.8% and 72.2% respectively. From October to December, 62.9% of annual consumption was made. The rice sales from October to December and from October to January, the main shipping periods, recorded 71.7% and 76.6%, respectively, and the consumption and sales continued into next October. Farmers were found to consume, donate and sell the rice produced in the previous year until the harvesting time of new crop.

Farmers preferred high price, convenience in sale and easy encashment in order. And farmers are satisfied with RPC than other distribution agents like milling company and regional rice collector in terms of price and confidence. Although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41% of marketable rice was sold to RPC.

59 out of 83 farmers changed clients with in recent 5 years and reduced the share of RPC, milling company, wholesaler, and

retailer. The farms that reduced the sales proportion to milling company increased the sales to RPC,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farms that reduced the sales proportion to RPC increased the proportion of sales to milling company and direct sales. Some farms showed the intention of changing to direct sales because of high margin.

Researchers: Park Dong-Gyu and Kim Hye-Young.
E-mail Address: dgpark@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참 고 문 헌

- 박동규 등. 2002. 『2002년 수확기 쌀 시장 안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동규 등. 2003. 『산지 쌀 가격 조사체계 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 등. 2002.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시행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석원. 1998. “양곡(쌀) 유통 실태 및 구조 개혁 방향.” 한국유통학회.
- 윤석원, 이대훈. 1999. “수확 후 산지 쌀 관리 및 유통구조의 변화와 발전방향.” 한국농업경제학회.
- 윤석원, 김근영. 2002. “쌀 유통 실태 및 개선 방향.” 총서 13. 한국쌀연구회.
- 정태호. 1997. “산지 미곡유통의 변화와 미곡종합처리장.”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1998. “미곡주산지 쌀 생산 및 판매실태.”
- 농협중앙회. 2001. “수확기 쌀 유통여건 전망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연구보고 R455

농가의 미국유통 실태 분석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3. 12.

발 행 2003.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ISBN 89-89225-45-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